



차·음악 그리고 단풍...가을 山寺의 위로

18일 장흥 보림사·24~26일 구례 화엄사

청태전 마시며 명상치유법문 듣고
전통-현대 음악 들으며 지친 마음 힐링
템플스테이로 비우고 또 채우기

선선한 바람이 마음을 적시는 가을이다. 바람을 타고 색을 바꾸고 있는 가을 단풍이 남도의 산자락을 수놓고 있다. 산자락 아래 자리한 사찰에서 잇따라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특히 올해 산사음악회는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사건들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녹여주기 위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간의 무게로 덧칠한 사찰에서 가을 풍경을 벗삼아 듣는 힐링 음악 속으로 빠져보자.

장흥 유치면에 위치한 천년고찰 보림사(주지 일선 스님)는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보림사 명상치유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가지산 자락에 있는 한국 선불교의 종찰인 보림사 일대는 100~400년 된 비자나무가 대단위로 자생하고 녹차, 대나무 숲, 단풍나무, 참나무 등이 우거져 있어 운치있는 풍경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오후 5시에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이자 '힐링의 아이콘'인 해민 스님의 명상치유법문이 진행된다. 이어 피아니스트 임동창씨가 '임동창의 풍류-영산회상'을 주제로 흥아라밴드와 함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풍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임동창씨는 '청산은'(작사 나용선사·작곡 임동창), '청산도'(작사 허서 김인후·작곡 임동창) 등의 곡을 연주하고, 소프라노 박성희씨와 함께 '아리나리랑'(작곡 안정준),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을 들려줄 예정이다. 흥아라밴드의 연주, 노래, 퍼포먼스, 춤이 어우러진 무대로 기대된다.

앞서 오후 4시에는 초의선사가 극찬한 보림선차 청태전과 선아 발차차 흥보 및 시음 행사가 열리는 등 차와 음악, 가을 단풍이 어우러지는 음악회가 될 예정이다. 한편 보림사에서는 '선차의 향기를 듣는다'를 주제로 템플스테이가 진행되고 있다.

주지 일선 스님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털어 내고 느끼고, 천천히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선사들이 전파하는 선과 차를 통해 명상치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한영애



임동창



해민 스님

"가족, 연인, 직장 동료 등 많은 분들이 산사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1-864-2055.

구례 마산면에 있는 화엄사(주지 종삼 스님)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음악회와 템플스테이가 어우러진 '화엄음악제 2014'를 개최한다.

지난 2006년 처음 열린 화엄음악제는 올해 9회째를 맞았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원일 예술감독이 총감독을 맡은 올해 음악제는 '정견(正見)'을 주제로 열린다. 작곡가, 지휘가, 연주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멀티 아티스트 원일 총감독은 7년 전부터 화엄음악제에 참여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총감독을 맡고 있다.

이번 음악제는 전야제와 본 공연, 템플스테이 등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24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전야제에서는 피아니스트 임동창씨와 흥아라밴드의 음악명상 공연을 만날 수 있다.

25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본 공연은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하는 월드뮤직 그룹 공명의 연주, 주말리 불독과 하피스트 이기화씨의 클래식 공연, 생황 연주가 김효영씨와 피아니스트 박경훈씨의 무대로 꾸며진다. 본공연의 피날레는 포크에서부터 블루스, 록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한영애씨가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음악제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25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사전에 개별 신청을 받고 있다.

주지 종삼 스님은 "자연과 음악을 통해 일상에서 잊고 있었던 내면의 세계와 공감하고 다른 이의 세계를 마주하며 소통하는 음악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1-782-760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묵향 그윽한 예향

한·중 서법교류전 15~21일 금호갤러리



한국과 중국 서예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전시가 광주에서 열린다.

국제서법예술연합 한국본부 호남지회(지회장 박신근)는 15일부터 21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제20회 한·중 서법교류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이돈홍 명예회장 등 호남지회 회원 130여명의 작품과 중국 북경사범대학 교수 25명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앞서 지난 7월22~26일 호남지회는 북경사범대학 내 경사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두 단체는 지난 1993년 7월 제1회 교류전을 가진 이후 해마다 광주와 중국에서의 교류전시를 통해 상호 서예문화를 비교 연구하며 고구 서법의 발전을 도모해오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관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문의 062-263-6272.

박신근 작 '고산 선생 시'

/김경민기자kki@

김완 시인, 신작 '너덜정 편지' 출간

김완 시인이 신작 시집 '너덜정 편지'(푸른 사상)를 냈다.

이번 시집의 특징은 등산과 여행 중에 만나는 사물과 경험을 밝은 정서로 노래한다는 데 있다. 자연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인의 정서가 객관적이며 밝다는 증거로 작곡의 한국 현대시에 만연한 병적인 멜랑콜리와 변별되는 지점이다.

"뱃꽃잎 부분분 날리는 / 부곡정에 들어선다 / 연탄불 돼지 삼겹살 구이 / 상추에 마늘, 매운 고추 얹어 / 된장 쌈 하니 / 세상살이 여여(如如)하다 / 도가지 혈이 내은 것지에 / 소주 한 잔 하니 / 가야 할 길들 환해진다" ('봄, 소주' 전문)

대표작 '봄 소주'는 그의 시적 정서를 대변하는 대표적 시다. 우울이나 좌절, 권태, 불안을 찾을 수 없는 밝은 정서는 "여름 햇빛"처럼 밝고 환하다. 이은봉(광주대 문창과 교수) 시인은 김

완 시인의 시를 가리켜 "밝고 환한 정서, 어린이처럼 깨끗하고 순진한 정서가 주조를 이루는 것이 그의 시"라며 "맑고 투명한 무구의 정서, 곧 순수의 정서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지 않다"고 평한다. 한편 김완 시인은 2009년 '시와 시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그리운 풍경에는 원근법이 없다'를 펴냈다. 현재 광주보훈병원 심혈관센터장으로 있으며 시낭송회 '비타포엠'을 이끌고 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전남대 '높고 푸른 사다리' 서평 공모

법시·도민 독서운동 '2014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를 진행하고 있는 전남대학교가 26일까지 '서평 공모전'을 갖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의 한책'으로 선정된 '높고 푸른 사다리'에 대한 시·도민의 깊이 있는 사고와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전남 시·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A4 2장 내외로 서평을 작성해 이메일(jtalk@jnu.ac.kr)로 응모하면 된다. 최우수상 1편 등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11월 초 홈페이지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최우수상 1명에게 도서관장상과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성애선 전남대학교 도서관장은 "이번 서평 공모전과 11월 개최 예정인 독서 토론회 등 독후 활동을 통해 책을 읽고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경험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